귀농 부부의 악몽…죽음으로도 끝나지 않은 '귀농 텃세'

2008년 땅 경매 받아 순천 귀농
전 소유주 요청에 원가로 되팔고
지역 유지 딸기원묘사업 투자
배당 제대로 못받고 보증까지
욕설·폭력 고통 속 주민들 외면

고소 사건 이후 집요한 괴롭힘
남편 우울증 퇴원 후 극단적 선택
홀로 남은 부인도 폭행 시달려
지역 유지 "오히려 내가 피해자"

"은퇴 후 시골에서 작은 농사를 지으며 종교 봉사활동을 하는 게 저희 부부의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전 재산을 투자한 귀농은 지옥 그 자체였고, 마을 주민들의 지독한 텃세 탓에 남편이 스스로 목숨까지 끊었지만, 괴롭힘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30일 순천시의 한 딸기 원묘 농장의 비닐 하우스에서 만난 김모(여·56)씨는 차양 모자에 마스크를 끼고 장갑과 토시를 낀 농사꾼의 모습이었다.

마스크를 벗은 김씨의 표정은 인터뷰 내내 어두웠다.

경남 하동이 고향인 김씨 부부와 순천의 첫 인연은 2008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씨 부부는 광양제철소를 퇴직한 그 해 순천시 소재의 토지(3만3057㎡)을 경매로 1억2000만 원에 낙찰받았다.

둘 다 신학대학교를 나올 정도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부부는 경매 받은 땅에 농사를 지어 그 수익으로 교회를 짓고 종교 봉사활동을 하는 꿈에 부풀었다. 그런데, 경매받은 땅의 전 소유주가 지역 유지인 A씨를 통해 경매가로 재매입하고 싶다는 뜻을 수차례 전해왔고, 주민과 좋은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김씨 부부는 고민 끝에 경매가만 받고 땅을 되돌려줬다.

이 때만해도 김씨 부부는 A씨, 그리고 A씨 집성촌 주민과의 악연이 시작될 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한다.

김씨 부부는 2008년 말 어느 날 딸기원묘 농사를 짓던 A씨의 설득으로 국가보조금(7억원) 사업인 딸기원묘 영농조합에 3억 5000만원을 투자하게 된다. 조건은 연 1억원 수익 보장에 조합 지분 50%를 받는 것이었다. 하지만, 김씨 부부는 이후 단 한 차례 3000만원을 배당받은 게 전부였다.

오히려 김씨 부부는 2011년 말께 영농조합 운영비 부족 등을 이유로 영농조합명의 대출금 2억원에 대한 보증까지 서게 된다.

김씨는 "처음엔 강하게 거부했는데, A씨가 농사를 짓지 않으면 국가보조금 7억원을 모두 환급해야 한다고 협박을 해 어쩔 수 없이 보증까지 섰다"면서 "현재도 월 100만원 안팎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고 울먹였다.

결국 계속되는 적자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김씨 부부는 2012년 말부터 A씨가 추천한 일꾼 부부를 고용해 직접 딸기원묘 농사에 뛰어들었지만, 귀농의 진짜 악몽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A씨와 일꾼 부부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김씨 부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조롱을 퍼붓기 일쑤였고, 갑자기 공포분위기 조성하기, 필요한 농기구 숨기기, 양수기 호스 잘라버리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혔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들도 김씨 부부를 무시하고, 외면하긴 마찬가지였다.

결국 김씨의 남편(당시 59세)은 2013년 4월 어느 날 A씨로부터 뺨까지 맞았고, 충격을 받은 남편은 몸 왼쪽 전체가 마비됐다.

A씨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김씨 부부는 A씨를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A씨는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후 A씨는 자신이 추천했던 일꾼부부, 그리고 집성촌 사람들과 함께 더욱 집요하게 괴롭힘을 이어갔다고 한다.

김씨는 "당시 영농기술지원 등을 받기 위해 순천시와 해당 면사무소, 기술지원센터, 작목반 등 그 어디를 찾아가도 A씨 때문에 도울 수 없다며 당사자간 잘 풀어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오히려 농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으면 국가보조금을 환수하겠다는 협박성 말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약 20건의 고소·고발이 진행됐고, 대부분의 피해자는 우리인데도 쌍방과실 또는 무혐의가 나왔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끔찍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김씨 부부는 모두의 무관심 속에 2016년 8월 22일에도 A씨로부터 또 폭행을 당했다. 남편은 상해 진단 3주를, 김씨는 상해 진단 2주를 받았다.

남편은 당시 폭행 후유증에 따른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서 8개월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A씨는 징역 10개월 형을 살았다.

2017년 4월 퇴원한 남편은 "당신을 만나 행복했어요… A에게 욕먹고, 얻어맞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나는 죽지만, 당신은 여기를 떠나요. 그래야만 살수 있어요.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법에 호소해봤자 소용이 없어요"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김씨는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이미 모든 재산을 농장에 투자한 탓에 다른 곳으로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던 중 김씨는 지난 1월 자신에게 도움을 주는 임모씨를 만나 다시 삶의 희망을 가지고 농장일을 하고 있지만, A씨의 괴롭힘은 여전하다는 게 김씨의 주장이다. 지난 18일에는 임씨가 A씨의 포크레인 버켓에 맞아 쓰러지기도 했다. 임씨는 병원 치료를 받은 뒤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이에 대해 A씨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씨 부부와는 상종하기 조차 싫다"면서 "오히려 내가 내 농장을 빼앗겼고 피해자다. 이들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측 변호사는 "농촌사회의 특성상 경찰까지도 외지인보다는 기존 주민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면서 "남편이 자살할 당시에도 그랬고, 이번 포크레인 사건 때도 그렇고, 경찰이 단순폭행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등 편파수사를 하려한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통계청의 '2018년 기준 귀농어·귀촌인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귀농가구 1만 1961가구 중 전남은 2026가구로, 경북(2176가구)에 이어 2번째로 많았다.

/순천=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울음 안 멈춘다고 신생아 침대에 던져

광주북부경찰, 가사도우미 입건

광주북부경찰은 30일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가사도우미 A(여·59)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양산동 한 아파트에서 생후 25일된 신생아의 어깨를 흔들고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아이가 계속 울며 보채자 달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며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생아의 부모는 집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 학대 사실을 확인했으며, 아기는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부모로부터 CCTV영상을 제출받아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마음은 벌써 겨울…광주시청 옆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공사

30일 오전 광주시청 옆 문화광장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를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스케이트장은 오는 12월 개장해 2월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아빠 찬스' 채용 비리 전남대병원 압수수색

경찰, 하드디스크 등 확보

전남대학교병원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핵심 증거물 확보를 위해 본원과 산하 병원,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무국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30일 광주지방경찰청과 동부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전남대병원 본원, 화순전남대병원, 빛고을전남대병원, 채용 비리에 연루된 사무국장 자택 등에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3시간여에 걸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채용비리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무국장의 아들·조카·아들 여자친구 등에 대한 채용 과정과 간부끼리 서로 아들 면접에 '품앗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의혹 등을 밝혀낼 방침이다.

압수한 증거물 분석이 끝나면 곧바로 피의자 소환 조사가 시작되며, 수사 주체도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동부경찰에서 광주청 지능범죄수사대로 넘어갔다.

경찰은 국정감사에서 채용 비리 의혹이 제기된 이후 사무국장이 업무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한 정황도 확인할 예정이다.

이번 채용비리 의혹관 관련, 이삼용 전남대병원장은 30일 사과문을 내 "국민 여러분과 취업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한다"면서 "자체감사와 혁신위원회를 통해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부적정 행위가 적발돼 중징계 1명, 경징계 12명, 경고 9명 등 조치를 요구받았다. 병원 측은 일부가 채용 업무에 참여했으나 불법 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며 이 중 12명에게 감봉(1명)·경고(11명) 조치를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한빛원전 1호기 오늘 발전 재개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 1호기(95만㎾급)가 31일 오후 1시 30분 발전을 재개해 다음달 2일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한빛 1호기는 지난 5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재가동 승인을 받고 가동을 준비하던 중 하루 만인 10일 오전 열 출력이 18%까지 급증하는 이상 현상이 발생해 수동으로 정지했다.

한수원은 지난 8월 원안위가 수립한 재발방지대책 16개의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이행 중이다.

한수원은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시 되는 환경 조성, 운영기술능력 향상 등 3개 분야 16개 대책에 대한 이행 여부를 원안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지난 29일 한빛 1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했고, 향후 가동 후에만 검사할 수 있는 출력상승시험 등 9개 항목의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주 모 고교서 교직원이 답안지 조작…교육청 감사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이 특정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 전북도교육청이 감사에 착수했다.

30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이달 중순 2학년 학생 A군의 중간고사 답안지에서 3문제의 오답이 시험 직후 정답으로 수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학교는 답안지 수정자가 교직원인 것으로 파악한 뒤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해당 교직원은 답안지 수정 사실을 인정한 뒤 사표를 제출했지만,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수리되지 않았다.

A군도 자퇴 의사를 밝혔다.

A군은 이 학교에서 지난 2월까지 교무부장을 지낸 교사의 자녀로 확인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무슨 이유로 A군의 답안지를 고쳤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집 데려달라는 요청 거절한 경찰에 앙심…거짓 신고한 취객

쌍나팔

○…"집에 데려다 달라"는 자신의 요청을 경찰이 거절한 데 앙심을 품고 거짓 신고를 한 40대 취객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서행.

○…30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42)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 55분께 광주시 남구 백운지구대 앞에서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 중이던 한 경찰관의 개인 차량을 지목하며 "경찰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거짓 신고를 했다는 것.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너무 취해 지구대를 찾아가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거절당해 홧김에 거짓 신고를 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0계>

※QR코드:법원경매정보 웹으로 접속됩니다.

사건번호	매각물건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아파트]					
2019타경 3316	1	서구 운천로32번길7, 503동 6층 605호 [금호동,금호시영일반분양아파트] 59.82㎡	아파트	135,000,000 135,000,000	
2019타경 6209	1	북구 운암동 110-80 101동 6층 603호 133.47㎡	아파트	270,000,000 270,000,000	
2019타경 8571	1	북구 용봉동 1150-1 용봉동대화아파트 101동 7층 703호 59.85㎡	아파트	124,000,000 124,000,000	
2019타경 10055	1	광산구 임방울대로142-12, 119동 3층 302호 [운남동,삼성아파트] 84.92㎡	아파트	171,000,000 171,000,000	
2019타경 65376	1	북구 양산제로76, 101동 3층 301호[연제동,연제동고운하이플러스아파트]73.4639㎡	아파트	266,000,000 266,000,000	
2019타경 66201	1	서구 염화로57번길16, 제101동 제14층 제1406호 84.99㎡	아파트	191,000,000 191,000,000	
2019타경 67631	1	나주시 남고문로36-14, 111동 8층 802호 [송월동,송월주공아파트] 49.96㎡	아파트	61,100,000 61,100,000	
2019타경 67785	1	광산구 송정로77, 103동 410호 [송정동,금강아파트] 59.94㎡	아파트	130,000,000 130,000,000	
2019타경 67891	1	서구 양동 60-2 1동 10층 1007호 84.92㎡	아파트	163,600,000 163,600,000	
2019타경 68047	1	광산구 운남동 781-1 운남8단지주공아파트 806동 1층 101호 59.42㎡	아파트	147,000,000 147,000,000	관리비는수개월째 미납된상태임
[대지/임야/전답]					
2019타경 7110	1	곡성군 곡성읍 신월리 80-6 588㎡[황옥순 지분15분의3전부,김성곤,김봉기,김영희,김봉자,김봉애각지분15분의2전부.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1회로제한]	대	15,797,600 15,797,600	토지만매각,매각제외되는제시외건물있음
2019타경 9352	1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산129-2 5950㎡[현재자연림및일부전]	임야	6,545,000 6,545,000	
2019타경 9536	1	화순군 화순읍 이십곡리 372-1 212㎡	전	3,392,000 3,392,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9659	1	영광군 백수읍 홍곡리 33-1 949㎡[일부지상에매각대상아닌타인소유건물일부소재]	전	8,541,000 8,541,00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2019타경 65765	1	화순군 남면 사평리 32-3 1484㎡	답	75,684,000 75,684,000	
2019타경 66416	1	곡성군 옥과면 무창리 779-1 129㎡[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95,167,320 95,167,320	일괄매각.제시외건물포함[목록1축사9㎡매각제외]
		동소 779 98.58㎡	단독주택		
		동소 779 658㎡ 제시외 창고 82㎡	대		
2019타경 66959	1	영광군 군서면 남계리 산22 397㎡[2/3서영우지분전부]	임야	22,790,430 22,790,430	일괄매각.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1회로제한
		동소 산22-2 547㎡[2/3서영우지분전부]	임야		
		동소 산22-4 3420㎡[2/3서영우지분전부]	임야		
2019타경 67396	1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248-1 4479㎡[이동규3분의1지분전부.농지취득자격증명요]	전	13,597,560 13,597,560	일괄매각.목록1,2,3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1회로제한
		동소 산44 620㎡[이동규3분의1지분전부]	임야		
		동소 산44-2 600㎡[이동규3분의1지분전부]	임야		
2019타경 67525	1	남구 원산동 산60 2380㎡[이성수30분의5지분전부]	임야	2,935,350 2,935,350	지분매각,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횟수1회로제한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9타경 66089	1	나주시 그린로335, 제1동 제1층 제107호 [빛가람동,수플러스빌딩] 80.14㎡	근린시설	671,000,000 671,000,000	
	2	동소335, 제1동 제1층 제108호 [빛가람동,수플러스빌딩] 80.14㎡	근린시설	671,000,000 671,000,000	
	3	동소335, 제1동 제1층 제109호 [빛가람동,수플러스빌딩] 40.8㎡	근린시설	341,000,000 341,000,000	
[자동차,중기]					
2019타경 8861	1	사용본거지:광주 서구 풍암신흥로 40, 101동 1601호[풍암동,동부센트레빌] 등록번호:64버7427 차명:Qashqai 연식:2015	자동차	15,000,000 15,000,000	보관장소:광주광산구산정동156,현대주차장
2019타경 67204	1	사용본거지:광주 북구 임방울대로1041번길101동 401호 [신용동,용두주공아파트] 등록번호:16버9383 차명:Passat 2.0 TDI 연식:2015	자동차	16,000,000 16,000,000	보관장소:광주시광산구상완길314-16㈜수완컨테이너하우스주차장
2019타경 68221	1	사용본거지:서구 쌍촌동 1228-1 빛고을파크 103동 504호 등록번호:35수6519 차명:푸조 308 1.6 e-HDi 연식:2014	자동차	10,000,000 10,000,000	보관:광주시광산구상완길314-16수완컨테이너주차장
[기타]					
2019타경 386	1	장성군 황룡면 월평리 609-7 3284㎡	답	1,634,023,400 1,634,023,400	일괄매각.제시외건물,공장및공업재단저당법제6조목록기계기구각포함
		동소 609-7 주건축물제1동 1층935㎡ 2층30.42㎡ 제시외 가추 등 266㎡	공장,창고,사무실		
		동소 609-7 주건축물제2동 1층292.62㎡ 2층324.12㎡ 3층172.2㎡	사무실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①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매각이 불허가 될 때에는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이를 배당시 매각대금에 산입한다. 불법형질 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이 이를 부담할수 있음.

② 공유자가 민사집행법 제140조에 의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그 매수신고 후 최초로 진행되는 매각기일에 매수보증금의 미납으로 실효되는 경우 그 공유자는 그 이후 해당 부동산의 매각기일에서는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당해 기일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경우 최저매각가액을 공유자우선 매수신고액으로 본다.

1. 매각기일 : 2019. 11. 14. [목] 10:00
2. 매각결정기일 : 2019. 11. 21. [목] 14:00
3.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4. 매각방법

① 입찰법정에 비치된 기일입찰표에 사건번호, 입찰자의 성명, 주소, 입찰가격, 보증금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보증금을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입찰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매수신청의 방법으로는 최저매각가격의 1할[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 또는 현금을 준비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일명 보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②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입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입찰자목록에 각자의 지분을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③ 입찰봉투의 투입이 완료되면 곧바로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정하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입찰자들만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합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제외한 다른 매수신청인들의 매수신청보증금은 입찰절차가 종결되는 즉시 반환합니다.

5.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① 최고의 가격으로 입찰한 사람에 대하여 매각결정기일에 매각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금지급기한은 통상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지정됩니다.

② 지정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재매각을 실시합니다. 다만, 재매각기일로 지정된 날의 3일전까지 종전 매수인이 매각대금 및 지연이자, 비용을 납부하면 대금납부로서 유효하며, 따라서 재매각은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6. 소유권이전 및 인도

①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며, 각종 저당권, 가압류등은 순위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및 저당권이나 가압류의 말소등기를 위해서는 등록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등록세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하고, 국민주택채권말행번호를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위 등기를 촉탁하여 줍니다.

② 매각대금을 납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소유자 또는 대항력없는 부동산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면 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주의사항

① 매각된 주택 또는 상가건물에 최선순위의 저당권 등이 설정된 날짜보다 먼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사업자등록신청을 마친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차보증금을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② 일반인들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매각기일 1주일 전부터 매각물건 명세서, 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 등을 우리법원 민사집행[신청]과에 비치하여 열람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미리 필요한 정보를 얻으신 후 입찰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③ 특별매각조건의 내용은 매각물건명세서의 열람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④ 입찰법정에 나오실 때에는 입찰표의 기재 및 입찰보증금의 반환에 필요하오니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오시기 바라며, 타인의 대리인으로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반드시 입찰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소유권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요구되는 농지의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된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이 허가됩니다. 단,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매각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⑥ 공고된 물건중에 매각기일 전에 경매신청이 취하되거나 잠행이 취소·정지된 경우, 또는 매각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공고 없이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⑦ 신문에 공고되는 물건은 최초의 매각기일에 해당되는 물건이며, 속행사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신문공고를 하지 않으므로 우리법원 게시판의 공고나 법원에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⑧ 매각대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면 매각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매수신청인이 제출한 매수신청보증금을 반환합니다.

매각기일 공고의 요지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소 : http://www.courtauction.go.kr[법원공고 → 법원경매정보선택]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공고내용외의 열람 가능한 정보는 법률상 제공하도록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을 국민편의를 위하여 따로 제공한 것으로서, 혹시 그 중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 신청이나 항고, 대금감액신청이나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없으므로, 관심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반드시 법원에 나오셔서 게시된 매각기일의 공고나 비치된 매각물건명세서 등을 직접 확인하신 후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019. 10. 31.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최성관